

“출판황제 김상문회장의 끝나지 않은 꿈”

〈4월호에 이어〉

대구 브로커 왕 홍길동을 잡아라

1950년 5월 25일 김상문은 대구에서의 생활과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수표동에 대지 60여 평 한옥을 샀다. 시가 750만 원이었다. 우선 집안부터 안정시켜 놓고 본격적인 출판사업을 할 계획에서였다.

저자들에게 참고서의 집필의뢰를 하고 나자마자, 6.25 전쟁이 터졌다. 9월 18일에는 집이 전소되었다. 당장 갈곳이 없어 그날 밤은 청계천 다리 밑에서 지냈다. 집이라고는 장롱서랍 몇 개만 간신히 건졌다.

11월이 되었다. 김상문은 피난도 가지 못한 채 식구들과 서울에 남아 있었다. 9.28 수복 후에 잡혀 들어간 장조카 때문이었다. 장조카가 사무적으로 빨갱이로 지목된 것이었다. 그는 구명운동을 벌이느라 동분서주하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늦어졌던 피난을 12월 초, 쏟아지는 눈발을 헤치며 군 트럭에 남아 있던 종이를 몽땅 싣고 대구로 내려갔다. 김상문은 약방을 하는 중형 맥에 피난 보따리를 풀었다.

김상문은 이때 브로커 노릇으로 피난생활 꾸려나갔다. 우선 장인이 소개한 사람에게서 종이를 사서 다른 종이 가게에 되팔아 꽤 큰 수익을 남겼다. 대구에는 피난민과 피난 물자들이 밀어닥쳤다. 그는 중고품으로 일제 제부라 자전거 한 대와 론진 금박지 자동시계, 파커 만년필을 사서 우선 자신부터 고급으로 보이도록 겉모양을 치장했다. 넥타이도 매일 바꿔 매고 자전거를 타고 활동을 했다. 어느 날 느릿느릿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는데, 달성군청 앞에 세워 둔 트럭에서 잉크냄새가 풍겨왔다. 김상문은 화물주에게 다가가서 ‘팔겨냐’고 물었다. 좋은 잉크냄새는 아니었지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화물주에게 넌지시 다 팔아 주겠다고 하고는 그 길로 영남일보사로 갔다. 공장장에게 가져간 잉크를 시험해 보고 ‘좋은 잉크’라고 말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그러고는 영업국장에게 가서 잉크를 사라고 권했다. 그 국장은 공장장을 불러 품질에 대해 물었다. 공장장은 ‘좋은 잉크’라고 말했다. 결국 인쇄잉크 한 트럭을 영남일보사에서 다 샀고 김상문은 이때 상당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 후로도 혈값에 연판납을 한 차사서 주인용(문성당출판사 문화서점사조산업창업주)의 합진인쇄소에 납품하여 큰 수입을 올렸다.

어느 날 세무서에서 '대구의 브로커 왕 홍길동'을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김상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리 저리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피신 끝에 제자라고 속인 한 세무서원에게 잡히고야 말았다. 이때 김상문은 특유의 녀석과 기지를 발휘하여 세무서원을 중국집으로 데리고 가서 요리를 시켜 놓고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내 본업은 출판업이고 이 브로커 생활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오. 이제는 그만둘 것이오"

그는 세무서원에게 사정을 한 뒤 금일봉을 쥐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세무서원들은 번갈아 김상문을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다. 생각다 못해 그는 아예 그를 찾아왔던 세무서원들을 몽땅 소집했다.

"이제 정말 출판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도와주시오.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출판계가 완전히 마비되었으니 내가 앞장서서 재건해야 하겠소. 출판업이 죽어 가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가 죽어 가는 것과 같으며 내가 출판업으로 성공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꼭 보답하겠습니다."

김상문은 진심어린 열변으로 그들에게 호소했다. 그러고는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주며 푸짐하게 요리대접을 했다. 그리고 브로커생활을 청산하고 출판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1951년 9월 정식으로 '동아출판사'로 등록한다.

동아출판사 학습참고서를 제패하다

그는 공평동 집 옆에다 조그만 건물을 지어 동아출판사 문을 다시 열었다. 무엇을 낼까 고심하던 중 중학교 시험이 멘탈테스트(지능검사)로 나온다는 신문기사에 착안, 그에 대한 예상문제를 만들기로 하였다. 집필은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일선교사들에게 의뢰했다. 그 결과 1953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중학입시 예상문제집》이 출간되었다. 판형은 타블로이드판이었다. 학습참고서로는 최초의 대형 판형이었다. 가격은 1만 원이었다.

처음에는 뜸하던 판매가 10월 말이 되자 책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무섭게 팔려 나갔다. 지방에서는 룯색을 메고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 문제집은 총 13만 부를 찍어 7~8억 원어치나 파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는 단지 책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전쟁이 국토를 휩쓸어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였다.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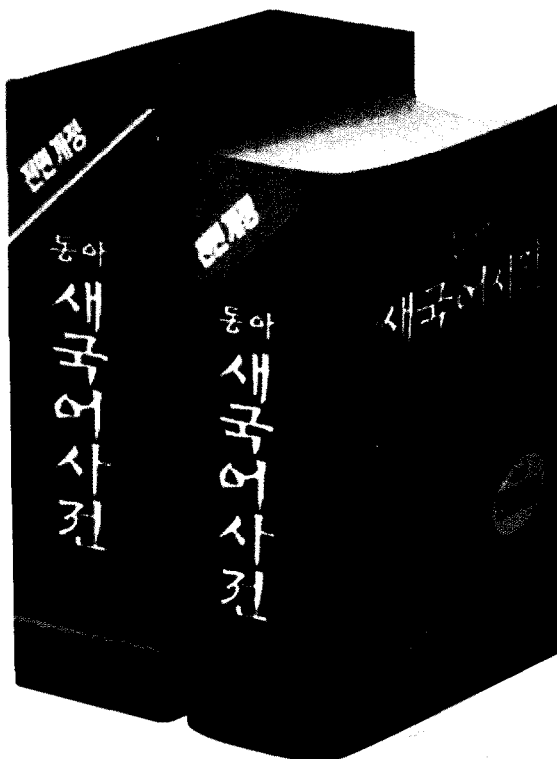
1954년 국내 최초로 교사용 《전과지도서》를 만들었다. 초등학교 5~6학년용으로 국판 약 4백쪽이었다. 집필진은 대구 시내 유명 초등학교 교사들이었다. 특히 국어과목은 김사영이 맡았다. 이 책 역시 반응이 좋았다. 종이도 교사용이기에 갱지를 쓰지 않고 모조지를 썼다. 학생 아이들까지 교사가 보는 책을 사고 싶어했다.

그 해 5월 그는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편집부 직원 5명, 영업부 직원 2명, 임시직원 2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에게는 이사 비용과 살 집을 마련해 서울로 이사 시켰다. 동아출판사 일만 전담하기로 하고 표씨인쇄소와 배화인쇄소를 서울로 옮기는 비용도 대주었다.

이 무렵 제작량의 증가로 인쇄사 한 군데만으로는 동아출판사의 일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에 김상문은 자체 사옥을 짓기로 결심하게 된다. 자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전국적인 주문에 맞출 수도, 보안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벤던 자모 활자혁명

1955년 10월 김상문은 서대문 네거리 대지 9백 평에다 3층 건물을 올렸다. 1층은 인쇄사, 제본소, 2층은 편집실, 영업실, 3층은 조판실로 이루어졌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1956년 주식회사 동아출판사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무렵 동아출판사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전무 이성우(뒤에 성문각 발행인), 편집고문 김사영, 편집책임자 이준범(뒤에 신흥출판사 발행인), 영업부장 정태진, 차장 심창근이었다.

신사옥을 짓고 나서 3년 뒤에는 《동아전과》와 함께《동아수련장》을 출판했다. 《동아전과》는 국판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용까지, 《동아수련장》은 4×6배판으로 1학년에서 6학년용까지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동아전과》도 국판에서 4×6배판으로 바꾸었다. 국판은 제본(손접지)이 힘이 들어 간편한 것으로 바꾼 것이다. 이어서 김상문은 중학생용 참고서 '뉴코스 시리즈'를 내놓았다. 그 무렵 학원사에서 내는 중학생용 참고서인 '간추린 시리즈'가 이미 출판계를 석권하고 있었지만, 동아출판사의 '뉴코스 시리즈'가 출판되자 '간추린 시리즈'는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동아출판사는 벤턴 자모 조각기 2대를 도입하여 일본식 활자체를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 벤턴 자모 조각기로 만들어진 한글체는, 박경서가 조선어사전의 활자체를 새 맞춤법에 맞추어 수각(手刻)한 것을, 초전(初田) 활자제작소에서 자모(字母)로 만들어 활자화한 것이 모체가 된다. 벤턴 조각기로 만들어진 미려한 활자체에 우수한 내용의 출판물을 속도가 빠른 서적운전기로 인쇄한다면 출판계에서 누구보다도 앞서 나아가리라는 의욕에서였다.

김상문의 이러한 사업의 집념은 우리나라 출판인쇄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다. 김상문의 인쇄 활자 혁명은 한국 출판 인쇄계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김상문은 활자혁명을 하여 1년 동안 사용해 보다가 다시 2차 혁명, 3차 혁명까지 도전한다. 그와 함께 활자개혁에 앞장 선 공로자는 최정호였다. 최정호는 한국 활자문화의 선구적 장인이었다. 대구에서 삼협프린트사를 경영하면서 도안체 글씨의 제일인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를 서울로 불러올린 것이 김상문이었다.

동아출판사는 1958년 《국어새사전》을 발간한다. 그 무렵 사전의 활자 크기는 모두 5호 곧 10.5포인트였다. 김상문은 다권본 사전을 한 권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 사전에 8포인트의 활자 몸체에 7포인트 활자를 새로 조각한 자모를 사용했다. 이 《국어새사전》집필에는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교수들이 두루 참여했다.

김상문은 이 사전을 우리나라의 출판계에서는 최초로 월부판 매라는 시스템을 운용해 판매했다. 세일즈맨을 두고 공격적인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4×6배판에 2천 쪽의 이 사전은 약 20만 권 정도가 판매되었다.

1959년 서대문 사옥 3층 건물을 5층으로 증축했다. 그 무렵 동아출판사는 종업원 약 600명에 달하는 큰 기업이 되었다. 이때 단권《새백과사전》을 출간했는데 이 백과사전을 만들면서도 조판개혁을 단행했다. 항목은 8포인트로 하고 설명은 7포인트로 하여 총 1천5백 쪽, 4×6배판으로 출간해 냈다. 이때 학원사의 백과사전이 동시에 출간되어 좋은 비교가 되었다.

동아출판사는 그해에 《백만인의 의학》, 제임스 조이스 등 현대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세계문학전집》등과 1960년 남광우의 《고어사전》등을 출간하면서 한편으로 공장시설을 최신기계로 계속 증설해 나갔다.

《조선말사전》

1978년이었을 것이다. 《동아새국어사전》 편찬을 극비에 불리고 일본에 다녀오며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말사전을 구하여 들어오다 김포공항에서 연행당한다. 조사관들에게 우리 국어사전 편찬에 참고할 연구용이라 해도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국어사전의 의미와 가치를 전연 이해하지 못했다. 조선말사전은 1950년대 한글학회편 을유문화사 간행으로 이루어진 《우리말 큰사전》편찬을 주도했던 이극로 선생 등이 북한으로 가서 다시 편찬해 낸 역저였다.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의 얼이며 국학의 꽃인 우리 국어사전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출판인의 책무인 것이다. 따라서 동아출판사가 전국민 애장서로 펴내는 《동아새국어사전》에 김상문은 큰 야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일보 장기영 사주가 힘써 주어 저너 9시가 넘어서야 풀려날 수가 있었다. 《동아새국어사전》은 2002년 당시 300만 부 이상 팔린 한국사전 출판사상 최대 베스트셀러로 군림하고 있다.

《새영한사전》《새국어사전》《리틀영어소사전》《독한사전》《한한사전》《한영사전》 등의 콘사이스판 어학사전들을 간행하기 시작했으며, 《유네스코 영문판 한국총람》, 중고교생의 《검인정 교과서》도 이 해에 처음 출간되었다.

동아출판사는 1961년 제1회 한국출판문화상 수상, 1963년 제1회 우량출판사 표창을 받으며, 1964년에 198종의 도서를 간행하여 출판계의 선두에 우뚝 섰다. 그러나 김상문은 시설확장을 계속해 나가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어, 부도에 몰리고 김상문 사장과 이종근 편집부장은 피신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1968년부터 3년간 채권단에 의해 위탁경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심기일전한 김상문은 '뉴코스 시리즈'를 능가하는 《완전정복》을 출간 도전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우선 서울을 위시해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작전을 세웠다. '뉴코스 시리즈



즈'를 국판에서 4×6배판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교과서 전문을 넣고 문제와 풀이를 덧붙여 교과서 없이도 한 권의 참고서로 한 과목을 완전히 공부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한편 김상문은 중학교 학습참고서《완전정복》의 대량판매의 길은 없을까 하고 무척 부심하였다. 교실에서는 책의 내용보다 채택료의 다과에 따라 선택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일선 교사들의 반감을 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대량판매 방법을 밤낮으로 모색하던 끝에 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봉사시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완전정복》국어·영어·수학의 세 권을 한꺼번에 살 때는 같은 학년의《완전정복》중에 학생이 원하는 한 과목을 무상으로(학교 앞으로 직송하는 방법과 특약점을 통해서) 주는 방법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영업 간부회의를 거쳐 기습작전으로 옮겨졌다. 이 기습작전은 학생과 학부모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아《완전정복》은 전국 중학교 참고서의 대명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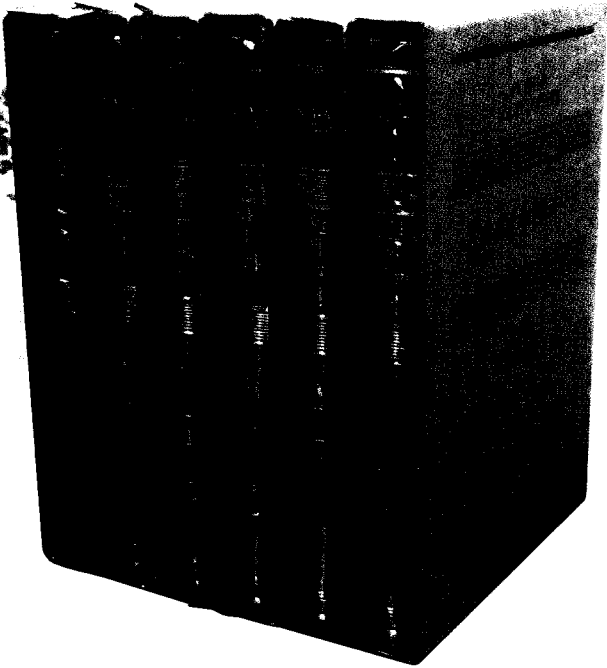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동아전과》는 전국을 휩쓸었다. 초등학교생들은 너도나도 동아출판사 참고서와 문제집으로 공부하였다. 전국 500만 이상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전과지도서와 문제집은 없어서는 안될 학습서였다. 이 엄청난 물량을 대느라 동아출판사는 4색 오프셋 윤전기를 계속 도입하고 올 원색으로 인쇄함으로써 우리 인쇄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선구 역할을 하였다.

김상문은 추격해 오는 교학사 등을 앞서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묘책을 생각해 냈다. 그때는 국민학교, 중학교용 학

습참고서 가격은 판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책을 미리 지방 특약점에 발송해 놓고 개학 직전 가격 일람표를 보내어 비로소 판매를 하게 했다. 영업간부회의를 수시 열었다. 5, 6학년용《동아전과》의 가격을 1,950원으로 하자는 그의 안에 영업 책임자 등 간부사원 전원이 반대했다. 그들은 1,950원이나 2,000원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상문은 교학사의 전과 가격이 1,900원인 것을 알고 1,900원으로 하기로 정해 버렸다.

우선《동아전과》가 교학사의《표준전과》보다 내용이 우수한 데다《표준전과》보다 50원 비싼 것이 오히려 심리적으로《동아전과》를 선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과 구입을 위해 학생들이 대부분 2천 원을 가져오는데《표준전과》1천9백원은 100원을 거스름돈으로 내주지만,《동아전과》1천9백50원에 대한 거스름돈 50원은 현찰 대신 대부분 50원짜리 연필이나 지우개로 대신하게 될 것이니, 학교 앞 문방구에서 20원 정도 더 이익을 본다는 점이다.

이 유도작전으로 상승일로에 있던《동아전과》는 마침내 전국 판매부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판매상들이 다른 전과보다《동아전과》만을 팔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김상문은 판매 전략에서도 아이디어로 승부를 내는 기지를 보였다. 동아출판사는 1971년부터 '완전정복' 시리즈를 발간하여 사세를 회복하고 1976년 봄부터 다시 시설확장에 돌입하였다. 1976년에 인쇄물 수출 제1위를 기록했고, 1978년에는 참고서 시장 점유율 70%를 돌파했다.



중학교 학습참고서는 교과서가 국정이나 검인정이나에 따라 판매양상이 달라진다. 즉 주요 과목이 국정일 때는 단일화가 되어 출판하기도 쉬운 데다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지만, 주요 과목이 검인정 교과서(5종)일 때는 학습참고서도 5종으로 분산판매가 되며 동아출판사가 갖고 있지 않은 검인정 교과서의 학습참고서는 출판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된다.

학습참고서는 3월 1일에서 10월 사이에 대부분 판매가 끝난다. 이 10일간의 영업작전을 위해 동아출판사는 방대한 인쇄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이다.

검인정교과서 사건 이후 1978년부터 중학교 국어는 물론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서가 국정으로 되돌아갔다. 이때 '완전정복' 시리즈는 타사를 제압하고 전국 중학교 참고서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용의 우수성과 공급 속도면에서 타사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이었다. 본사의 운전기는 물론 시중의 운전기까지 동원해서 수급에 만전을 기했다. 중학교 학습참고서의 호황은 8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동아출판사가 학습참고서 사상 최고 판매를 기록한 것은 1983년 1학기로서, 초·중·고 합해서 약 4천만 부를 생산했다. 특히 중학교용 '완전정복' 시리즈(평가문제집 제외)는 1천1백만 부 정도 생산했고 반품은 5% 미만이었다. 83년도 동아출판사 전체 매상고는 1천억 원에 이르렀다.

《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 》

김상문은 1980년 계열회사로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와 대아지공주식회사를 따로 설립하였다. 1982년에는 국내 출판, 인쇄업계

최초로 전산사식 체계를 도입하였다. 1983년에는 《1984년 로스 앤젤레스 올림픽가이드》 5개국어판의 발행·인쇄 및 판매권을 정부로부터 따내어 미국에 현지법인 동아서적을 설립하였다.

김상문이 1978년 일본 동경에 있는 일본 굴지의 출판사 쇼각간에 들렀을 때 그곳에서 《원색세계대백과사전》한 질 20권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쇼각간 영업책임자가 4년간 2백만 질을 팔았다고 자랑하던 것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당시 편집부 총책임자 이종근 상무에게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에 대한 총면수, 출판비용, 편집 소요기간, 집필진에 대한 면밀한 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그러나 이종근 상무는 백과사전 계획서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당했다. 그 뒤 공재화 상무가 뒤를 이어 진행하다가 김상형 상무에게로 넘어갔다. 그런 시련을 겪으며 1981년 가을부터 매월 2권씩 출간되어 1983년 1월 한 질 30권이 마침내 완간되었다. 국내 석학을 망라한 집필진으로 이루어진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은 그 내용과 인쇄, 제본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수준이라고 문화계의 상찬을 받고 이로써 김상문은 1983년 10월 출판인으로서 처음으로 정부 보관문화훈장을 받는다.

그러나 한 덩핑업자가 동아출판사의 백과편찬기획과 TV 신문 광고에 편승하여 1970년대 구판인 《학원백과사전》 전20권 지형을 인수받아 구판 그대로를 학원출판공사라는 이름으로 《신판 학원세계대백과사전》 전20권이라 하여 공세를 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

“나의 출판인생에 실패는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김상문에게 시련이 몰아닥쳤다. 수년간 과다한 건물 및 설비투자와 백과사전 발간에 따른 악성자금 이용에서 비롯된 자금압박으로, 그는 사면초가의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태양을 향해 날아가던 이카로스의 날개가 태양빛에 녹아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추락하듯, 김상문은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을 출간하고도 제대로 판매해 보지도 못하고 어처구니없이 15년이 지난 구판을 최신판이라고 독자를 우롱하는 덩핑업자의 《학원세계대백과사전》으로 인해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은 빗덩이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1984년 9월이었다. 당시 두산그룹 부회장 박성용이 김상문을 찾아왔다. 사장실문을 들어선 그는 웅장한 키를 깊이 숙이며 “술장사 박성용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자기를 소개한다.

“우리 두산으로서는 원하는 바가 아닌데 위에서 무조건 동아를 인수하라 하니 참으로 갑갑해서 찾아뵙습니다. 많은 가르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판은 일반기업과 달라 상품의 지속성이 아주 짧습니다. 주인이 전력하여 계속 신상품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날의 두산 박성용과 동아 김상문의 대화 요지였다.

1985년 2월 14일 전두환 정권의 강압에 의해 동아출판사 간부와 두산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인수인계의 조인식이 시작되었다. 김상문은 무조건적으로 인수인계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출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퇴직금조로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동아출판사 고문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해 11월 10일 고문직에서 물러난다. 하루종일 사원하나 찾아주지 않는 허수아비 고문으로 취임 9개월 만에 40년간 정을 쏟아 키운 동아출판사를 떠난 것이다. 그때 동아출판사는 법정관리만 받아들여졌어도, 사옥 대지를 팔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출판인의 운명

김상문은 1989년 6월 10일, 새로이 자본금 3억 2천만 원으로 상문출판사를 설립해서 제2의 출판 인생길을 걸기로 한다. 그는 출판사업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편집진은 동아출판사의 옛 동료들이었다.

회장 김상문, 사장 김윤진, 편집상무 이세열이었다.

그들은 먼저 무난한 유치원용 학습참고서 《내일은 1학년》을 펴기로 했다. 크라운 배판 울컬러 80쪽으로 값은 2500원이었다. 초판을 찍어 가지고 지방서적상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호응은 좋았으나 판매는 부진했다.

그 다음은 전과목 단기완성, '대입정보' 시리즈로 '모조지 2색 인쇄, 4×6배판, 평균 128면, 각권 2,500원 신문광고도 냈다. 그러나 D출판사에서 상문출판사 참고서를 취급하는 서점은 거래를 끊겠다고 압박하여 판매는 급격히 막히고 '대입정보' 시리즈는 진열도 못해 본 채 그대로 반품되었다.

김상문은 상문판 《18년간 고입총정리》를 발간하기로 했다.

전사원이 일치단결 노력한 결과 3월 중순 D출판사와 거의 동시에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압박을 받고 있는 서점들이 취급을 꺼려 반품만 쌓여 갈 뿐이었다.

김상문은 이제 '출판이 김상문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운수와 수명이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천명의 춘추동이 찾아드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는 죽은 뒤 입관 때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1권과 제30권 그리고 《동아전과》한 권을 함께 넣어 달라고 가족에게 미리 일러 놓았다.

여든여덟 미수(米壽)인 김상문은 후학 고정일의 《동서문화사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명예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암 김상문은 오수에 잠기면 바빠진다. 3천 평 대지에 세운 동아출판사 6층 건물 계단을 뛰어오르내린다. 2천여 명의 사원들을 진두지휘하며 《동아전과》《완전정보시리즈》《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편집 인쇄 제본을 감독한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짓는다.

아내가 그를 흔들며 깨운다. “여보, 낮잠이 길면 밤에 주무시지 못해요. 무슨 좋은 꿈을 꾸었나요?”

잠시 아쉬운 여운을 정리하고 정암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한다. 장자(莊子)의 말대로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이 아닌가. 그 무엇이 다르랴. 동아출판사는 정암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 있다. 정암은 평생 출판동지이며 반려자인 아내의 고운 손을 꼭 잡았다.

김상문은 1970~90년대 전국토가 부동산투기로 들썩일 때도 초지일관 오직 책에만 전념했다. 심지어는 죽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접 전국 도서관을 돌며 도서관공급에 열을 올렸더니 그의 책사랑은 끝이 없었다.

2011년 3월 6일, 경칩일인 그날 자산하던 100세의 3년 모자란 97세의 천수를 누리고 동아출판사의 꿈과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았다. ↻

고정일·동서문화사 사장

